꼴찌 '인천'의 반란?… 순위표 확 바뀔까

K리그1 풀리그 최종라운드 오는 20일 6경기 동시 진행 선두 울산 VS 최하위 인천 경기 결과 따라 순위 요동

최하위 인천 유나이티드(오른쪽)와 선두 울산 현대가 오는 20일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맞붙는다. 연합뉴스

꼴찌 같은 선두냐, 선두 같은 꼴찌냐. 오는 20일 오후 3시 프로축구 하나원큐 K리그1 2020 풀리그 최종 22라운드 6경기가 일제히 치러진다. 22라운드를 끝으로 12개 팀은 상·하위 6개 팀씩 파이널A, 파이널B로 나뉘어 마지막 다섯 라운드를 치른다.

축구 팬들의 시선은 최하위 인천 유나이티드와 선두 울산 현대가 맞붙는 인천축구전용구장으로 향한다. 리그 선두 팀과 꼴찌 팀이 한 번에 바뀔 가능성을 품은 일전이다.

울산(승점 47)은 21라운드에서 2위 전북 현대(승점 45)에 완패해 한 경기 차 추격권에 놓였다. 인천(승점 18·15득점)은 직전 라운드 FC서울과의 경인 더비에서 승리해 '잔류왕'의 위용을 뽐냈다.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렀으나 11위 수원(승점 18·18득점)과 승점에서 동률을 이뤘다. 오는 주말 인천이 울산을 이기면, 전북이 선두로 올라서고 수원이 꼴찌로 내려앉을 수 있다.

조성환 인천 감독은 서울전을 마치고 "호락호락하게 내주진 않을 거다. 김도훈 (울산) 감독도 준비를 잘해야 할 것"이라며 울산을 향해 '선전포고'를 날렸다. 근거 있는 자신감이다. 인천은 최근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를 기록했다. 대구FC, 강원FC, 서울 등 하나같이 버거운 상대를 모두 1점 차로 거꾸러뜨렸다.

울산에는 전북과의 시즌 최종 맞대결을 치를 장소가 결정될 수 있어 인천전 승리가 더욱 중요하다. 파이널라운드 1, 2위 팀 간 경기는 1위 팀 홈에서 열린다. 울산과 전북 중 풀리그를 선두로 마치는 팀이 홈에서 '3차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는 이점을 안는다는 얘기다.

국가대표급 선수단을 구축한 울산은 여전히 강력하다. 전북에 2전 전패한 충격에서 팀을 어떻게 추스를지, 시즌 막판이 되면 활동량이 두배가 되다시피 하는 인천 선수들의 발을 전술적으로 어떻게 묶을지, 김도훈 울산 감독에 달린 게 많다.

전북은 10위(승점 21) 부산 아이파크를 홈인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불러들여 선두 탈환에 도전한다. 전북은 울산 전 승리로 3경기 무승을 끊어냈다. 남은 경기에서 모두 이겨 역전 우승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크다. 부산전은 그 시작점이다.

최근 4경기 무승(2무 2패)에 빠져 다시 강등권 언저리로 내려온 부산은 11라운드 서울전 뒤 10경기째 침묵하는 이동준의 득점포가 살아나느냐가 관건이다.

수원은 6위 (승점 24) 강원과 원정 경기를 치른다. 6위 싸움에 한창인 강원 역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수원으로서는 힘든 승부가 예상된다. 연합뉴스

9월로 옮겨진 US오픈… "더 어렵다"

기온·날씨 등 영향 미칠 듯 러프·그린 적응 여부 관건

US오픈 골프 대회는 종전까지 해마다 6월에 열렸지만 올해는 9월에 열린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석 달 미뤄졌기 때문이다.

올해 대회 장소는 뉴욕 인근 머매러넥의 윙드풋 골프클럽. 지난 2006년 6월에 이곳에서 열린 US오픈과는 어떻게 다를까.

무엇보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이 2시간30분 정도 짧아지는 게 가장 두드러진다. 위도가 높은 뉴욕은 6월이면 오후 9시가 넘어도 경기를 치를 만큼 해가 길지만 9월에는 오후 7시에 해가 진다. 선수들의 티타임이 전반적으로 빨라지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경기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날씨다. 6월 윙드풋 골프클럽 기온은 섭씨 30도에 이른다. 습도가 높고 바람은 거의 없다. 무더운 날씨였다.

그러나 대회 기간 18~21일(한국시간) 이곳 날씨는 아침이면 10도 이하로 떨어진다. 낮에는 25도 가량으로 높아진다. 일교차가 크다. 오전 티오프하거나 오후 늦게 경기를 마치는 선수는 따뜻한 옷을 챙겨야 한다. 바람도 여름보다는 강해진다. 바람을 읽고 파악하는 일이 보태진 셈이다.

2006년 이곳에서 경기를 치러본 선수들은 연습 라운드를 해보고 나서 "더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악명 높은 그린과 러프가 6월보다 9월이 더 어렵다는 얘기다.

그린은 더 빠르고 단단하다. 습도가 낮고 바람이 더 강하게 불기 때문이다. 그린은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날씨에는 단단해지고 빨라진다.

러프의 길이와 밀도도 다르다. 더 길어지고 더 빡빡하다. 막 자라기 시작한 6월과 달리 여름 내내 물과 햇볕을 듬뿍 받으며 자랐기 때문이다.

좋은 점은 잔디 상태가 여름보다 더 매끄럽고 균질하기 때문에 퍼트한 볼이 친 대로 구른다는 사실이다.

갤러리가 없기에 러프가 수많은 갤러리의 발길에 밟혀 엉망이 되는 일도 없다는 점도 선수들에게는 작은 위안이다. 연합뉴스

'K리그 외국인 역사' 데얀 "200골·50-50클럽 향해 간다"

국내 프로축구에서 12번째 시즌을 보내는 대구FC의 베테랑 공격수 데얀(39·사진·몬테네그로)이 K리그 역사에 기록 추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데얀은 16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성남FC와의 K리그1 21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 10분 선제골, 후반 18분 결승 골을 터뜨리고, 전반 37분에는 세징야의 골을 어시스트해 팀의 3-2 승리에 앞장섰다.

2골 1도움 맹활약으로 대구의 K리그 통산 200승과 동료 세징야의 '40(골)-40(도움) 클럽' 가입을 이끈 데얀은 이번 시즌 K리그 기록을 8골 2도움으로 늘려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로써 그의 K리그 통산 기록은 197골 47도움이 됐다. 3골을 더하면 200골에 도달하고, 도움은 3개를 추가하면 50개를 채운다.

200골과 50도움 모두 리그 역사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될 법한 기록들이다. 국내 프로축구에서 '200골'은 40년 가까운 역사상 아직 한 명밖에 달성하지 못한 대기록이다. 1998년부터 현역 생활 중인 '라이언 킹' 이동국(전북·228골)이 유일하게 200골을 넘어선 선수다.

그 뒤를 잇는 K리그 역대 득점 2위가 데얀이다. '200골 달성'도 이동국에 이어 역대 두 번째가 된다. 이동국은 2017년 10월 자신의 467번째 출전 경기에서 통산 200골 고지를 밟았는데, 16일까지 375경기에 나선 데얀이 '최소 경기 200골' 타이틀을 가져갈지도 주목된다.

도움 50개 돌파는 '50(골)-50(도움) 클럽' 가입을 의미한다. 50-50클럽 역시 장기간 K리그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쳐야 가능한 만큼 가입자가 많지 않다. 외국인 선수에게는 더 쉽지 않은 기록이다. 7월 말 50번째 도움을 올리고 합류한 울산 현대의 이근호까지 K리그를 통틀어 주인공이 10명밖에 탄생하지 않았다. 이 중 외국인은 몰리나(전 서울·68골 69도움)와 에닝요(전 전북·81골 66도움)뿐이다.

데얀은 20일 오후 3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FC 서울과의 22라운드에서 공격 포인트 추가를 노린다. 그는 6월 14일 서울과의 시즌 첫 대결 때 6-0대승에 방점을 찍는 쐐기포를 꽂은 바 있다. 연합뉴스

돌아온 프로농구 사상 첫 컵대회

오는 20일 11개팀 출전 개막 10월 정규리그 전초전 기대

한국 프로농구에 사상 처음으로 진출하는 일본인 선수인 나카무라 다이치. 연합뉴스

MG새마을금고 KBL컵대회(이하 컵대회)가 20일 전북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개막한다. 프로농구 사상 최초로 열리는 컵대회인 이번 대회에는 10개 구단과 상무까지 11개 팀이 출전해 27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대회가 종료된 이후 약 2주 만인 10월 9일에 정규리그가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컵대회는 2020-2021시즌의 '전초전' 성격으로 팬들의 기대를 모은다.

8월에 원주 DB와 서울 SK, 안양 KGC인삼공사, 전주 KCC 등 4개 팀이 출전해 치를 예정이던 '서머 매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소된 아쉬움도 이번 컵대회를 통해서 달랠 수 있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서머 매치'에는 출전이 제한됐던 외국인 선수들이 이번 컵대회에는 뛸 수 있기 때문에 '새 얼굴'들이 대거 등장한 외국인 선수들의 기량을 확인할 수 있다. DB에 아시아 쿼터로 입단한 프로농구 사상 첫 일본인 선수 나카무라 타이치가 이번 대회에서 어떤 기량을 보일지도 관전 포인트다.

여기에 이대성(오리온), 김지완, 유병훈(이상 KCC), 장재석, 김민구(이상 현대모비스) 등 이적한 선수들 역시 새 유니폼을 입고 첫선을 보인다. 연합뉴스

1급 기능사의 집
고급양복전문
월성라사
오랜 전통으로 품위있는 정장을 맞춰드립니다.
합리적인 가격, 최고의 품질을 제공해드립니다.
신사복, 와이셔츠, 남방, 단체복 일절

제주시 관덕로 10(삼도2동) Tel. 723-1140 H·P. 010-6677-1140

"최고의 맛과 서비스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만배성 한정식

한국조리기능장 양 만 배
양만배 조리기능장(Master Chef)이 어머님의 손맛처럼 만배(萬倍)로 정성(精誠)을 다하여 마련한 만배성한정식(萬倍誠韓定食)이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습니다.
예약문의 Tel. 712-6800
제주시 아연로 484-9(아라1동)
1층 만배성 밥집(10:00 ~ 15:00)
코로나로 인해 심신이 피로하고 지치신분들을 위해 만배성 밥집만의 기력회복에 좋은 신선하고 건강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1층 돌잔치 예약 받습니다 → 1인 15,000원)
식 사 류
가마솥영양밥+불고기 12,000원
가마솥육회비빔밥+불고기 12,000원
가마솥야채비빔밥+불고기 9,000원
궁중해장국효종갱 12,000원
왕갈비곰탕 12,000원
인삼꼬리곰탕 15,000원
도가니탕 12,000원
소머리곰탕 8,000원
차돌된장찌개 8,000원
소불고기 10,000원
도미머리미역갱국 10,000원
일품요리
잔치집돔베고기 20,000원
소고기육회 20,000원
도가니수육 20,000원
소머리수육 20,000원

2층 만배성한정식 코스요리(11:00 ~ 22:00)
상견례, 칠순, 팔순, VIP접대, 각종 연회 및 모임 등을 행사 취향에 맞는 메뉴를 마련하였습니다.

특A : 1人 70,000
A : 1人 50,000
B : 1人 40,000
C : 1人 30,000
점심특선 한정식 1人 20,000
※ 모든 요리에는 갓지은 즉석가마솥밥이 제공됩니다.